

#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

박경목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edicine community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Kyung-mok

*Dep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Liberal Ar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s 164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mong the independence activists and describ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independence movements. Their occupations included apothecary pharmacist, herbalist, and medicine dealer. They originated from Gyeongbuk, Hamnam, Pyeongnam, and Gyeongnam, with a higher proportion of Hamnams compared to independence fighters. Their ages are concentrated in the 30s and 40s. Their move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independence heroes, in the order of domestic resistance, the March 1 Movement, and Manchurian resistance. The crimes are Security Law, Exorcism No. 7 of the 8th Reign of Daejeong,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nd attempted murder. In terms of sentences, the proportion of those sentenced to five years or more in prison is higher, and the proportion of those sentenced to less is lower. The above independence movements in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re characterized by (1) the use of direct force, (2) long-term and planned struggle, (3) the provision of contact points and funding sources, (4) a nationalist line, and (5) low socialist-communist share.

Key words : Korean medicine, independence movement, domestic resistance, contact centers, nationalism

### I. 서론

한국 독립운동을 논할 때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족운동이다. 남녀노소, 신분, 나이를 초월하여 전 민족이 ‘독립된 조국 수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민족’의 개념을 스스로 깨치고 근대 민족주의가 발현되어 우리나라가 근대기로 이양되는 과정이 곧 독립운동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단적으로 3.1운동기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분포가 농업은 물론 학생, 교사, 기자 같은 지식인층과 종교인, 상인, 고용인, 관공서 직원, 직공, 자영업자, 제조업자, 의료인 등 사회 각 방면이었음이 이를

증명한다.<sup>1)</sup>

본고는 다양한 독립운동 참여 계층 가운데 한의약계<sup>2)</sup>에 주목하였다. 한의학을 익힌 한의사와 한의약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펼친 독립운동에 관해서이다. 의술을 펼치면서, 약재를 공급하면서 직면했던 일제 강점의 현실을 타개하려 했던 그들에 대해 각종 통계를 통해 객관화된 데이터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 되어있는 독립운동가 판결문을 활용하였다. 판결문 내 직업 표기에 한의약계 종사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검색하였다. 매약상(買藥商)·매약행상, 한약종상(韓藥種商)·약종상, 의생(韓의사), 의업(醫業), 침술업(鍼術業), 침의(鍼醫) 등이 대상이다. ‘매약’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효능과 용법을 쓴 포장 혹은 설명서를 보고 환자가 직접 사서 쓰는 약이다. 개항기를 거치면서 한

접수 ▶ 2023년 11월 06일 수정 ▶ 2023년 11월 22일 채택 ▶ 2023년 11월 21일  
교신저자 ▶ 박경목,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Tel : 042-821-6316 E-mail : jobada@cnu.ac.kr

본 논문은 2023년 대한학술원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1) 박경목, 「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2018:26:50-51.

2)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의약계’ 용어는 한의학, 한의사와 한의약재 취급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약업의 전통적 위치에서 한의약계가 서양 의약을 일부 받아들였고, 일제강점기 한약제 유통과 병행하면서 매약의 제조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sup>3)</sup> 이들을 ‘매약상’이라 칭했다. ‘약종상’은 매약상과 유사하나 진찰한 권리를 가진다는 면에서 구별되었다.<sup>4)</sup> 판결문 외 수형기록카드와 일제 측 경무국 보고서 및 기타 인물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한의약계에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선 인사들의 직업별, 출신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계열별, 죄명별, 형량별 통계를 추출하여 데이터화 하였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군의 특징 및 독립운동 유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병행하여 독립유공자 및 수형기록카드 데이터와 비교·분석을 통해 한의약계 독립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의약계 독립운동가

### 1. 직업

한의학은 실효성 있는 전통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종의 ‘미개함’과 ‘후진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소재로 이용당했다.<sup>5)</sup> 일제는 서양의학 외과술이 기존 한의학 치료보다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 곧 일본은 문명국이라는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통의학을 터부시하고 서양의학의 확산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강점 초기 일제는 서양의학을 다루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913년 11월 「의생규칙(醫生規則)」을 제정<sup>6)</sup>하여 기존 한의약 종사자들을 제도

권에 귀속시켜 통제하였다. 대한제국기 「의사규칙」<sup>7)</sup>에 의해 양의사와 동등하게 의료 자격을 부여받았던 한의사가 의사보다 지위가 낮은 ‘의생(醫生)’으로 격하되면서 일제의 일방적 통제하에 놓였다. 한의약 종사자들은 일제에 의해 활용되면서도 의사보다 열등하고 임시적 존재로 규정되었다.<sup>8)</sup> 1920년 3월부터는 신규 의생들의 면허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1922년 1월부터는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특정한 도(道)에서 특정한 면(面)으로 제한되면서 통제가 강화되었다.<sup>9)</sup> 1930년대에는 ‘한약의 장려’로 전환되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부족한 약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머물렀다.<sup>10)</sup>

이러한 식민지 현실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한의약계 인사가 있다. 그 기록은 국가기록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독립운동가 판결문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총 19,167건이 제공되고 있고,<sup>11)</sup> 부속하여 수형인명부 11,890건, 집행원부 10,706건, 형사사건부 22,144건의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판결 시기는 1906년 1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건이다.<sup>12)</sup> 동일 인물이 예심,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중복 인물이 다수 있어 총 인원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집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직업란에 매약(행)상, 약제사(藥劑師), (한)약종상, 의생, 의업, 의사(1913년 「의생규칙」 반포 이전), 침술업·침의라고 표기된 판결 건 총 235건을 선별하였다. 제공되는 판결문 19,167건 대비 1.23%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한의사는 의생규칙에 의해 의생으로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한의약재를 취급하거나 한의술에 종사하는 직업군이다. 이 가운데 동일 인물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 생성된 중복 건과 1913년 의생규칙 반포 이후 서양의학 의사를 제외한 인원수는 112명이다. 중복률은 52.34%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세부 직업별 인원은 <표 1>과 같다.

3)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매약’ 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2006;15(2):196.  
 4) 매일신보. 1912. 7. 18. “약종상의 구별, 각 경찰서에는 약품취체규칙을 의지하여 조선인 의사를 세밀히 조사한 후, 일반 병든 자를 진찰하여 약을 쓰는 자는 약종상(藥種商)으로, 남의 진찰로 인하여 약만 파는 자는 매약상(賣藥商)으로 인정하여 영업하게 한다더라.” 해방 후 보건법의 개정으로 매약상은 1968년, 약종상은 1971년 폐지되었고 일부는 ‘약방’으로 남게 되었다.  
 5)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의사학. 2008;17(1):76.  
 6) 조선총독부령 제102호. 1913. 11. 15.  
 7)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 제1조, 1900. 1. 2.  
 “醫士는 의학을 慣熟하여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内外景과 大小方과 藥品溫涼과 鍼灸補瀉를 통달하여 對症投劑하는 자” : 전통의학 지식을 가진 한의사를 의사로 규정.  
 8)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 제도와 정책의 운영」. 대동문화연구. 2018;106:337.  
 9)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의생규칙 개정’. 1921. 12. 5.  
 10) 박윤재. 앞의 논문. p. 78-79.  
 11) 「판결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DB(2023년 9월 기준).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listkeywordSearch.do>).  
 12) 1945년 8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소기각 77건 포함.

표 1. 판결문 기재 세부 직업 분포

구분	매약상	약제사	(한)약종상	의사	한의사 (의생)	의업	침술업·침의	합계
인원	30명	2명	36명	1명	33명	6명	4명	112명
비율	26.79%	1.78%	32.14%	0.89%	29.46%	5.36%	3.57%	99.99%

독립운동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있는 112명의 한의약계 세부 직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약종상으로 32%대이다. 이어 한의사와 의사를 합쳐 30%대, 제약상이 26%대이다. 약재를 취급하는 약종상·매약상이 58.93%로 절반을 넘는다. 약재의 구입과 채취, 그리고 판매를 위해 이들 직업군이 비교적 의심 없이 이동, 만남, 모임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수형기록카드와 공훈록, 『폭도에 관한 편책』, 『대정8년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및 기타 인물 자료에 의해 한의약계 종사자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원했다고 알려진 인물 52명을 추가하였다. 판결 건과 합하여 총 164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13)</sup> 다만 이들이 한의약계 독립운동가의 전부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표 1>의 직업을 가진 한의약계 종사자는 매일 매일 대중과 직면하는 사람들이다. 한의사는 의술을 일반에게 직접 시술하고, 제약상과 약종상은 약재를 취급하면서 면·군 단위, 크게는 도·전국 단위, 해외와의 거래로 활동 폭이 넓은 직업이다.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는 그들은 일제강점기 겪었던 한국민의 현실과 민족적 차별을 매일 매일 체감하였다. 이들이 나섰던 독립운동은 민족적 대의인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펼친 생존 투쟁이라 할 것이다.

## 2. 출신 지역과 나이

164명 가운데 출신지가 확인되는 160명을 대상으로 광역별 출신 지역<sup>14)</sup>을 산출하면 <표 2>와 같다. 경북(20명, 12.5%), 함남(20명, 12.50%), 평남(16명, 10%), 황해(12명, 7.5%), 전북(12명, 7.5%), 평북(11명, 6.88%)의 순이다. 독립유공자<sup>15)</sup>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하면 경북의 서훈

자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 경남, 전북, 제주, 충북, 평북 등지에서도 1% 내외 차의 유사율을 보인다.

두드러진 편차를 보이는 지역은 함남이다. 독립유공자 출신지 비율보다 7.82% 높아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함남 출신 20명의 운동계열은 3.1운동 7명, 국내항일 6명, 의병 2명, 만주방면 4명, 러시아 방면 1명이다. 국내항일 6명은 청림교 2명, 선도교 1명으로 종교 관련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함남지역은 개방성과 대륙적 기개, 강인한 생활력과 실천력 등의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sup>16)</sup> 이에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만주로의 이주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곳이다. 이 지역 출신 인사는 가족 또는 가문 단위로 세거지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사례로 북청지역에서 대대로 한의학을 전수한 평산(平山) 신씨(申氏) 가문이 간도로 이주한 사실이 있다. 신홍균이 1911년 가문을 이끌고 중국 봉천성 장백현 17도구로 이주하여 1933년 대전자령 전투에 군의관으로 참전하였다.<sup>17)</sup> 가업을 이은 그의 조카 신광렬도 함께 이주하여 1930년 동만청년총연맹원으로 간도지역 3.1운동 11주년 기념투쟁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sup>18)</sup> 원산 출신 백승하는 간도로 건너가 1919년 화룡현에서 맹호단(猛虎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로의 이주도 보인다. 1909년 러시아 코트지로 지역에서 한약방을 경영한 유경집은 자신의 한약방을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로 제공하였다. 자신과 아들 유동하(劉東夏) 및 안중근(安重根) 등 7명과 함께 7인 동맹을 맺었다. 안중근 의거 시에는 아들 유동하를 통역으로 참여시켰다.<sup>19)</sup>

각 도별 부·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의 출신지는 평양으로 9명(5.62%)이다. 다음으로 대구 7명(4.37%), 선천(평북)·북청(함남)·선천(황해) 각 4명(2.5%), 영양(경북) 3명(1.87%)의 순이다. 이하 부·군은 2~1명 사이의 출신 분포

13) 명단은 본고 <부록> 참조.

14) 본적을 기준으로 함. 현 광역시는 일제강점기 광역도에 포함시킴. 예) 대구 → 경북, 인천 → 경기 등.

15) 독립유공자는 항일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및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서훈받은 자를 의미한다.

16) 진선영. 「식민지 시대 '북청'의 지역성과 함경도적 기질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014;18(4):265.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서울:일빛. 2019:157-160.

17) 정상규. 「신홍균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32.

18)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광렬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471.

19) 차혜영. 「식민지 시대 폴란드 한의사 유경집의 유라시아 디아스포라와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 한국근현대사연구. 2019;89:102-141 참조.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

를 보인다. 각 도별 해당 부·군의 총합은 97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 전국 부·군 232개 지역 가운데 41.81%의 지역에서 한의약계 종사자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한의학을 익히고 의술을 펼치거나 한의약재를 공급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정한 숙련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적고 3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실제로 그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연령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는 판결문

과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재판 선고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역산하였고, 수감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독립운동을 한 시기에서 출생 연도를 역산하여 산출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164명 가운데 152명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짐작했던 바와 같이 <표 3>처럼 10대가 1.97%에 불과하고 30~40대가 152명 대비 90명, 59.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2. 출신 지역 분포<sup>20)</sup>

연번	광역도 (부·군 합계)	부·군	한의약계		독립유공자		비율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강원도(7)	금화 영일 울진 철원 춘천 평창 홍천	10명	6.25%	642명	3.62%	2.63%
2	경기도(9)	가평 강화 개성 고양 광주 부천 안성 양평 인천	11명	6.87%	1,488명	8.38%	△1.51%
3	경상남도(11)	고성 김해 마산 밀양 부산 양산 울산 창원 통영 함안 합천	13명	8.12%	1,428명	8.05%	0.07%
4	경상북도(13)	달성 대구 봉화 선산 안동 영덕 영양 영일 영천 예천 청도 청송 칠곡	20명	12.50%	2,456명	13.84%	1.34%
5	서울(1)		8명	5.00%	473명	2.67%	2.33%
6	전라남도(6)	목포 순천 여수 영암 장성 함평	7명	4.37%	1,484명	8.36%	△3.99%
7	전라북도(9)	고창 김제 무장 무주 부안 옥구 용담 임실 전주	12명	7.50%	1,122명	6.32%	1.18%
8	제주(1)	제주	1명	0.63%	192명	1.08%	△0.45%
9	충청남도(4)	논산 서산 예산 회덕(대전)	6명	3.75%	1,682명	9.48%	△5.73%
10	충청북도(3)	옥천 제천 청주	4명	2.50%	574명	3.23%	△0.73%
11	평안남도(8)	개천 대동 덕천 성천 용강 진남포 평양 평원	16명	10.00%	975명	5.49%	4.51%
12	평안북도(7)	구성 삭주 선천 신의주 용천 의주 정주	11명	6.88%	1,361명	7.67%	△0.79%
13	함경남도(9)	갑산 고원 북청 영흥 원산 이원 정평 함흥 홍원	20명	12.50%	831명	4.68%	7.82%
14	함경북도(3)	경성 명천 부령	8명	5.00%	545명	3.07%	1.93%
15	황해도(6)	금천 신천 웅진 은율 장연 재령	12명	7.50%	826명	4.65%	2.85%
16	외국		-		96명	0.54%	-
17	기타		-		25명	0.14%	-
18	미상		1명	0.63%	1,548명	8.72%	-
합계		97개 부·군	160명	100%	17,748명	99.99%	

\*괄호는 각 도별 출신 부 또는 군의 숫자

20) 부(府)는 해당 도(道)에 포함시킴. 예) 대구부 → 경북, 평양부 → 평남.  
독립유공자 데이터는 2023년 8월 15일 기준.

표 3. 연령대 분포<sup>21)</sup>

연번	연령대	한의약계		수형기록카드		비율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10대	3명	1.97%	462명	10.56%	△8.59%
2	20대	32명	21.05%	2,517명	57.50%	△36.45%
3	30대	46명	30.26%	870명	19.87%	10.39%
4	40대	44명	28.95%	332명	7.59%	21.36%
5	50대	15명	9.87%	152명	3.47%	6.40%
6	60대	12명	7.90%	42명	0.96%	6.94%
7	70대	-	-	2명	0.05%	-
합계		152명	100%	4,377명	100%	

이 수치를 수형기록카드의 연령대와 비교하면 한의약계 연령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수형기록카드는 일제강점기 체포, 수감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나이, 출신지, 죄명, 형량 등 20여 가지 이상의 수형기록(受刑記錄)이 기재되어 있다. 카드에 기록된 인물은 미결수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은 후 서대문형무소에 그대로 수용되거나 경성형무소 또는 대전형무소 등지로 이감되었다. 이들의 수감 사유는 대다수 보안법(保安法), 출판법(出版法),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의 이른바 '사상범죄(思想犯罪)'가 87.73%<sup>22)</sup>로 곧 항일 독립운동의 혐의였다. 따라서 수형기록카드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유효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sup>23)</sup>

한의약계는 비교 대상인 수형기록카드 인물과 20대와 40대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인다. 20대는 수형기록카드 인물이 57.5%인 것에 비해 21.05%로 △36.45% 낮은 반면 40대는 7.59% 대비 28.95%로 21.36% 높은 비율이다. 바로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한의약 종사자라는 특수성이 연령대에 그대로 드러난다. 10대의 비율이 △8.59% 낮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비교 대상보다 30대 10.39%, 40대 21.36%, 50대 6.4%, 60대 6.94%의 높은 비율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즉 수형기록카드 인물에 비해 20대에 과

다하게 집중되지 않았으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교 대상보다 높은 분포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50대와 60대, 당시 노년층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한의약계 인력 분포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 Ⅲ. 독립운동 유형

#### 1. 운동계열

한의약계 인사는 의병, 3.1운동, 문화운동, 국내항일, 의열투쟁, 광복군, 계몽운동, 임시정부, 일본방면, 만주방면, 중국방면, 노령방면 등 각 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sup>24)</sup> 한의약이라는 특수성으로 학생운동과 미주방면, 인도네시아 방면, 독립운동지원, 구주방면의 운동계열은 없다. 이 가운데 국내항일이 61명(37.2%)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3.1운동 45명(27.44%), 만주방면 23명(14.02%), 의병 16명(9.75%), 의열투쟁 5명(3.05%)의 순이다. 이 현황을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비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21) 수형기록카드 인물 출처는 박경목. 앞의 책. 2019:181. 이하 수형기록카드 통계는 위 책의 데이터를 참조함.

22) 박경목. 위의 책. p. 183.

23) 박경목.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8:64:201-240. 참조.

24) 운동계열 분류는 국가보훈부 공훈록의 분류를 따름.

표 4. 운동계열 분포

연번	운동계열	한의약계		독립유공자		비율 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의병	16명	9.75%	2,715명	15.3%	△5.55%
2	3.1운동	45명	27.44%	6,163명	34.73%	△7.29%
3	문화운동	1명	0.61%	103명	0.58%	0.03%
4	국내항일	61명	37.20%	3,056명	17.22%	19.98%
5	의열투쟁	5명	3.05%	132명	0.74%	2.31%
6	학생운동	-	-	742명	4.18%	-
7	광복군	1명	0.61%	579명	3.26%	△2.65%
8	계몽운동	2명	1.22%	134명	0.75%	0.47%
9	임시정부	4명	2.44%	395명	2.23%	△0.21%
10	일본방면	1명	0.61%	281명	1.58%	△0.97%
11	만주방면	23명	14.02%	2,483명	13.99%	△0.03%
12	중국방면	2명	1.22%	289명	1.63%	△0.41%
13	노령방면	3명	1.83%	174명	0.98%	0.85%
14	미주방면	-	-	414명	2.33%	-
15	인도네시아방면	-	-	12명	0.07%	-
16	독립운동지원	-	-	75명	0.42%	-
17	구주방면	-	-	1명	0.005%	-
합계		164명	100%	17,748명	100%	

대부분의 계열에서는 독립유공자 비율과 1% 이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의병, 3.1운동, 국내항일, 의열투쟁, 광복군 계열에서 유의미한 비율 차를 보인다.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 비율보다 높은 차이를 보이는 운동계열은 국내항일이다. 17,748명 대비 17.22%(3,056명)인 것에 비해 한의약계는 164명 대비 37.2%(61명)로 19.98% 높다. 활동 영역이 해외보다는 국내에 집중되었고, 매약상과 약종상들의 한약재 공급 범위 역시 주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국내항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큰 수치 차이는 아니지만 의열투쟁에서 특이점이 발견된다. 한의약계 자체의 참여 비율은 낮지만 독립유공자 비율보다는 2.31% 높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독립운동 방략에 있어 독립유공자 평균치보다 격렬한 투쟁에 나섰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비율보다 낮은 계열은 의병(△5.55%)과 3.1운동(△7.29%), 광복군(△2.65%)이다. 의병은 한의약계에서 전기·중기의병(1894~1906)의 참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이다. 자료가 보이는 한의약계의 의병 참여는 주로 후기의병의 참전이므로 독립유공자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3.1운동은 의열투쟁과 반대로 자체 비율은 높지만 독립유공자 비율보다는 낮다. 한의약계 인사의 투쟁 성향이 집단적 대중투쟁, 일시적 투쟁보다는 개별

투쟁과 장기적·계획적 투쟁에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항일의 비율이 비교 대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 광복군 계열은 국내항일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 1940년대 해외에서 활동한 한의약계 인물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결국 한의약계의 운동계열은 첫째, 국내항일과 3.1운동, 만주방면 계열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둘째, 독립유공자와 비교하면 국내항일과 의열투쟁 분야에서의 참여율이 높다. 셋째, 3.1운동과 같은 대중투쟁보다는 개별투쟁 및 장기적·계획적 투쟁의 참여 비율이 높다.

## 2. 운동노선

한의약계 인사는 일제 강점 이전 의병, 강점 이후 광복회, 군자금 모집, 조선총독 암살, 주요 기관 폭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 친일파 처단, 독립운동 단체 참여, 신사참배 거부, 독립군 참전 등 각 노선에서 폭넓게 활동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총 19가지 노선으로 나눌 수 있다. 3.1운동(45명), 독립운동 단체 참여(33명), 의병(16명), 민족종교 운동(12명), 데라우치 암살 미수(8명), 군자금 모집(7명)의 순으로 참여 비율이 높다.

표 5. 운동노선 분포<sup>25)</sup>

운동노선 (인원, 비율)	활동 인물
3.1운동(45명) (27.44%)	고익진 김두원 김몽한 김보곤 김봉희 김석로 김석현 김용성 김윤덕 김창락 노형근 모순기 박승룡 박승린 방원길 송인호 신선명 엄주신 윤인혁 윤종악 이가순 이근식 이만석 이명수 이명언 이민태 이용 이용돈 이용석 이윤석 이위춘 이종혁 이홍근 임도성 임성춘 정광순 정이선 주동섭 진택룡 채장숙 최승규 최예락 최종준 허재기 최응모
의병 (16명, 9.74%)	김동신(홍주 의병, 순천 거의) 김용현(최덕준 의진) 노병희(최익현 의진) 박양래(평안도유약소, 홍주 의진) 서병희(허위 의진, 독자적 거의) 서종채(기삼연 의진) 안종석(13도 의군) 어취선(유홍석 의진) 엄해운(노응규 의진) 여규호(이석용 의진) 원일상(함남 이원에서 활동) 오상원(이범윤 의진) 유병규(충남 면천에서 활동) 유환기(문태수 의진) 정환직(삼남 의진) 한운섭(홍범도 의진)
독립운동 단체 (33명, 20.12%)	강우규·김치보·안태순(노인동맹단) 강홍상(대한독립단) 김관제·민강(대동청년당) 김광희(고려혁명위원회) 김경윤(조선청년회) 김대용·김홍조·박성용(대한광복단) 최덕복(광복단) 나병규·문봉의·이기현·이연수·조종대(대한독립애국단) 박세정·이근식(보합단) 박영운(독립청년단) 박용태(친진 불변단) 방정환·이중환(만주 대한의군부) 백승하(맹호단) 손양윤(광복회) 심병조(대한독립청년단 연합회) 안형섭(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 이경창(신한혁명단) 이중희(간도교육협회) 장식(출진청년단) 조현영(신간회 동경지회) 차문옥(대한국민적십자회) 최정국(조선독립군비단)
테라우치 암살 미수 (8명, 4.88%)	김응봉 김응조 신상호 오택의 정주현 조영계 주현칙 한순직
매국노 처단 (1명, 0.61%)	김병록(이완용 처단 의거)
군자금 모집 (7명, 4.27%)	김유근 김헌식 민윤식 방주혁 전경인 전상준 홍순의
임시정부 연계 활동 (6명, 3.66%)	김영우(임시정부 특파원) 이병우(임시정부 특파원, 군자금 모집) 선철관 이원직(임시정부 서울고통국) 장형(임시정부 자금 지원) 최익무(임시정부 대한청년회)
임시정부수립 운동(1명, 0.61%)	이민태(한성정부)
폭파의거 (2명, 1.22%)	김성호(선천경찰서 폭파) 장진홍(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독립운동 근거지 제공(5명, 3.05%)	박성수(솔표조선무약) 윤창식·윤광열(동화약방) 허발·허형식(일창한약방)
동맹, 결사 (3명, 1.83%)	유경집(7인 동맹) 이시대·최세옥(6인 권총단)
독립군부대 (3명, 1.83%)	신흥군(한국독립군, 대전자령전투) 오영순(군정서) 이원발(정의부)
노동조합운동 농민운동 (3명, 1.83%)	서태석(암태도소작회) 안승락(동대문지역 적색노동조합, 공산당재건 경성준비 그룹) 한일청(6.10만세운동, 예천적색노동조합)
불은 불경 (4명, 2.44%)	변태우·이충현·최종채(불은) 최응모(불경)
불언비어 조언비어 (4명, 2.44%)	김용일·류재영·송암철(불언비어) 김채섭(조언비어)
신사참배 반대 (1명, 0.61%)	박관준
민족종교 운동 (12명, 7.32%)	강양원(증산교) 김중룡(정도교) 김홍규·이인언(태을교) 박두환(선도교) 방달홍·주인화(청림교) 류근성·안규석·이기우(흙치교) 윤석철(무극대도) 임일봉(태극교)
기타(8명, 4.88%)	강찬홍·김황룡·황진연(간도 지역 활동) 김경택(한국인 교육차별 비판 연설) 김영주(공산주의 결사 조직) 신광렬(3.1운동 11주년 기념 투쟁) 신전희(김기정정토시민대회) 위병식(독립운동 지원)
미상(2명, 1.22%)	문태현 박만수
합계 164명(100%)	

25) 164명 인물의 한자명은 본고 <부록> 참조.

위 가운데 다수의 인사들이 한 조직에서 참여한 운동노선은 독립운동 단체 활동으로 대한독립애국단, 노인동맹단, 대동청년당 등의 참여가 보인다.

대한독립애국단은 나병규, 문봉의, 조종대, 이연수, 이기현 5명의 한의약계 인사가 참여하였다. 이들의 직업은 판결문에 나병규와 이연수는 의생, 문봉의는 약종상, 이기현은 의생 겸 약종상으로 기재되었다. 나병규는 서울 상동교회에서 조종대와 친분을 쌓았고,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조종대를 도와 대한독립애국단의 연락 거점을 제공했다. 문봉의는 대한독립애국단의 재무감독과 충청도 방면 조직을 맡아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조종대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상동교회의 전도사로서 기독교계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던 인물이다.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일명 철원애국단) 강릉군단 및 평창군단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연수·이기현 등과 인적 네트워크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연수는 1919년 9월 대서업을 하고 있던 강대려(姜大呂)의 집에서 대한독립애국단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8월 하순 조종대가 배명학교 수학 시절부터 친구가 있던 강대려와 군단 설립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26)</sup> 즉 이연수는 강대려를 통해 조종대와 연결되었고, 강원도단 설립 시 단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내에 파견된 단원들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이기현은 조종대가 목재상을 하고 있던 친구 엄성훈(嚴成勳)에게 평창군단의 설립을 요청하여 이근세(李根世) 등과 평창군단을 조직할 때 자신의 집을 회의 장소 제공하였다. 동시에 평창군단의 일원으로 통신원 임무를 맡았다.<sup>27)</sup> 약종상을 운영하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다수의 사람을 만나도 의심을 받지 않아 통신과 왕래가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종대·이연수·이기현 세 사람은 군단 조직 이전 이미 상호 인적으로 연계되어 군단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조종대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열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1920년 1월 강원도단이 발각되어 위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대한독립애국단 관련으로 총 35명이 기소되었다.

이 가운데 5명, 14.29%가 한의약계 인사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정치범죄 처벌령(대정8년 제령 제7호), 증회(贈賄), 출판법, 보안법 위반과 공갈취체 등 다섯 가지이다. 조종대는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2년 7월 옥사, 순국하였다. 문봉의는 5년, 이연수는 1년 6월, 이기현은 6월을 선고받았고, 나병규는 벌금 100원을 선고받았다.<sup>28)</sup> 이기현은 출옥 후 1930년 10월 동서의학연구회의 평의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흔적이 보인다.<sup>29)</sup>

노인동맹단에는 강우규, 김치보, 안태순 3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단장은 김치보가 맡았다. 그는 190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여 1910년 8월 23일 성명회(聲鳴會) 조직 당시 유인석(柳麟錫), 이범윤(李範允), 김학만(金學萬), 차석보(車錫甫), 김좌두(金左斗) 등과 함께 취지서를 발표하여 조직을 주도하였다.<sup>30)</sup>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한약방 ‘덕창국(德昌局)’을 운영하면서 자선공제회 회장, 권협회 통신부장 등 연해주 지역 한인사회의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음] 3월 노인동맹단의 창단식이 바로 그의 한약방 덕창국에서 개최되었다. 단장에 선임되어 결사대 모집, 단원의 국내 파견 등을 계획하여 같은 해 5월 5일 안태순을 비롯한 이발(李發, 이승교) 윤여옥(尹餘玉), 정치윤(鄭致允) 등을 국내에 파견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이들은 제2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안태순이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sup>31)</sup> 그의 직업은 판결문에 의생으로 기재되었다. 강우규는 원산을 통해 서울로 잠입하여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단행하였다. 이들의 나이가 1919년 결성 당시 강우규 64세, 김치보 60세, 안승태 47세로 당시 기준으로 노인층이었다. 고령층의 인사로 구성된 결사인 만큼 그 가운데 한의약계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들의 의지는 강우규의 사이토 처단 의거로 발현되었다.

대동청년당에는 김관제, 민강 2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1909년 10월 부산 동래 남형우(南亨祐)의 집에서 박중화

26) 경성복심법원. 「신현구 외 10인 판결문」. 1921. 3. 14.

27) 장경호.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의 결성과 영동지역으로의 확대」. 국학연구. 2021;44:417.

28) 경성지방법원. 「김상덕 외 34인 판결문」. 1920. 12. 23.

29) 「京鍾警高秘 제15212호, 동서의학연구회 집회취체 상황보고」(1930. 10. 21). 『사상에 관한 정보철』.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3.7.15.)

30) 박주성, 김재기. 「러시아 연해주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국민노인동맹단 연구」. 제외한인연구. 2020;52:62.

31) 경성지방법원. 「안태순 판결문」. 1919. 7. 18.



(朴重華)·서상일(徐相日)·신백우(申伯雨)·신팔균(申八均)·안희제(安熙濟) 등이 단체를 결사하고 단장 남형우 이하 약 80여 명의 회원을 규합하였다. 이들은 각기 무장투쟁, 임시정부, 의열투쟁, 사회주의, 학교설립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이에 참여한 민강은 약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약방에 사람들의 출입과 금전 출납이 용이했다. 서울 화천정 5번지(현 순화동)에 위치한 동화약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과전원으로 국내에 잠입한 독립운동가의 문서 접수와 출입처, 독립운동 자금 접수처 및 전달의 연락 거점으로 활용하였다.<sup>32)</sup>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하여 3.1운동 이후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한 대동단에도 가입하여 동화약방을 대동단과 임시정부 연통본부의 연락 거점으로 제공하였다. 대동단의 1919년 10월 31일 제2차 만세시위 계획에 참여하여 체포되었다.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21년 3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관제는 대동청년당 조직에 참여하고, 강제병합 후 만주로 건너가 윤세복(尹世復), 이시열(李時說) 등과 동창학교(東昌學校)를 설립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15년 중국 봉천성 흥경현에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설립하여 교사로 재직하였다.

한의사와 약종상이라는 직업을 독립운동에 활용한 경우는 위 외에도 박성수, 이원직에게도 보인다. 박성수는 경성한(의)약전수학원을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이 일로 1년 1개월 옥고를 치렀다고 전해진다. 이후 1920년 한성약업사와 대창약업사를 창업하였다. 자신의 회사와 한의사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전국에 약재를 나르며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sup>33)</sup> 이원직은 한성병원에서 3년여 의학을 수련하고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한의학을 연구하여 한의사가 되었다.

1920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갖고 경성교통국 임시 교통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교통국장에 임명된 것은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 문서 배포, 동지 확보, 군자금 모집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sup>34)</sup>

## IV. 독립운동 특징

### 1. 죄명과 형량

164명 가운데 죄명이 확인되는 1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약계 독립운동가에게 적용된 죄목은 19가지에 이른다. 강도, 강도미수, 국방보안법·군기보호법, 내란, 내란음모, 대정8년 제령 제7호, 모살미수, 법률사무취급취체, 보안법, 불경, 사기취재, 살인, 살인강도, 소요, 육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증빙인멸, 총포화약류취체령, 출판법,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해군형법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표 6>과 같이 보안법으로 총 45명(34.35%)이다.<sup>35)</sup> 3.1운동의 참여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3.1운동에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보안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1919년 3.1운동기 독립운동가 처벌을 위해 급히 제정된 대정8년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이 29명(22.14%)으로 다음 순이다. 다음으로 치안유지법 위반 15명(11.45%), 모살미수(謀殺未遂)(8명, 6.11%)와 소요(8명, 6.11%)의 순이다. 3.1운동으로 보안법, 제령 제7호, 소요를 적용받은 한의약계 인사는 각 34명, 3명, 5명이고, 이 외 출판법 적용자는 1명이다.

32) 경성지방법원. 「전협 외 35인 판결문」. 1920. 12. 7.

33) 한의신문. 2022. 9. 15. '일제 치하 전국에 약재 나른 사업가·한의사, 박성수'.

34) 왕원균.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이원직-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성교통국 활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13-17.

35) 여러 죄명이 병합된 경우 가장 앞에 열거된 대표 죄명을 기준으로 함.

표 6. 죄명 분포

연번	죄명	인원	비율	연번	죄명	인원	비율
1	강도 (강도미수, 강도살인 포함)	5명	3.82%	11	육군형법	3명	2.29%
2	국방보안법·군기보호법	1명	0.76%	12	보안령	1명	0.76%
3	내란	3명	2.29%	13	조선임시보안령	2명	1.53%
4	내란음모	1명	0.76%	14	증빙인멸	1명	0.76%
5	대정8년 제령 제7호 (정치범처벌령 9명 포함)	29명	22.14%	15	총포화약류취체령	1명	0.76%
6	모살미수	8명	6.11%	16	출판법	2명	1.53%
7	보안법	45명	34.35%	17	치안유지법	15명	11.45%
8	사기취재	1명	0.76%	18	폭발물취체벌칙	2명	1.53%
9	살인강도	2명	1.53%	19	공갈협박	1명	0.76%
10	소요	8명	6.11%				
소계	103명		78.63%		28명		21.37%
합계			131명, 100%				

수형기록카드에서 죄명이 확인되는 4,062명 가운데 보안법 위반(1,171명, 28.83%), 소요(75명, 1.85%), 치안유지법 위반(2,745명, 67.58%)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안법과 소요는 운동계열에서 분석한 비율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 주목된다. 독립유공자 비율보다 3.1운동 참여율이 △7.29% 낮음에도 판결을 받은 비율은 수형기록카드 비율보다 보안법이 5.52%, 소요가 4.26% 높다. 한의약계 3.1운동 참여자들의 체포와 수감률이 수형기록카드 기록 인물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한의약계 종사자들의 3.1운동은 투쟁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을 의미한다.

반면 1925년 5월 공포되어 1920년대 후반부터 대량의 '사상범'을 양산했던 치안유지법<sup>36)</sup> 위반 비율은 수형기록카드 비율보다 △56.13% 낮다. 수형기록카드 기록 인원의 67.58%가 치안유지법을 적용받았던 것에 비해 한의약계는

11.45%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치안유지법이 192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사상사건에 주로 적용되었다는 점, 한의약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1925년 이전에 집중 분포한다는 점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전자는 전통적 의학을 수학하고 약재를 다루었던 이들이 새로운 사상적 조류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후자는 한의약계 분석 대상 164명 가운데 1925년 이전 재판을 받거나 활동한 인물이 116명, 70.73%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형량은 112명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징역 1년 6월~2년 미만인 17명(15.18%)으로 가장 많고, 1년~1년 6월 미만 14명(12.5%), 7월~1년 미만 12명(11.61%), 6월 11명(9.82%), 5년과 3년~3년 6월 및 2~3년 미만 각 8명(7.14%), 사형 7명(6.25%), 6~9년 6명(5.36%) 순이다. 각 형량별 인원과 비율은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7. 형량 분포<sup>37)</sup>

구분	형량	사형	무기	20년	18년	15년	14~10년	9~6년	5년	4년
한의약계	인원	7명	3명	1명	-	3명	2명	6명	8명	4명
	비율	6.25%	2.68%	0.89%		2.68%	1.78%	5.36%	7.14%	3.57%
수형기록카드	인원	-	25명	6명	1명	25명	69명	100명	96명	118명
	비율	-	0.89%	0.21%	0.04%	0.89%	2.47%	3.58%	3.43%	4.22%
비율차		-	1.79%	0.68%	-	1.79%	△0.69%	1.78%	3.71%	△0.65%
구분	형량	3년 6월~3년	3년 미만~2년	2년 미만~1년 6월	1년 6월 미만~1년	1년 미만~7월	6월	6월 미만	기타	합계
한의약계	인원	8명	8명	17명	14명	13명	11명	3명	4명	112명
	비율	7.14%	7.14%	15.18%	12.50%	11.61%	9.82%	2.68%	3.57%	99.99%
수형기록카드	인원	186명	461명	245명	462명	442명	341명	133명	86명	2,796명
	비율	6.65%	16.49%	8.76%	16.52%	15.81%	12.20%	4.76%	6.08%	100%
비율차		0.49%	△9.35%	6.42%	△4.02%	△4.20%	△2.38%	△2.08%	△2.51%	

36)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로 제정, 조선총독부 칙령 제175호로 1925년 5월 8일 한국에 공포, 1925년 5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1928년 일부 개정, 1941년 전면 개정되었다.

37) 무기형은 1910년 이전 의병에게 구형되었던 '종신유형(終身流刑)'을 포함한 수치이다.

수형기록카드와 비교하면 무기형, 20년, 15년, 6~9년, 5년, 3년~3년 6월, 1년 6월~2년에서 비율이 높다. 3년~3년 6월, 1년 6월~2년을 제외하고 5년 형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그 이하의 형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다. 5년, 6~9년, 15년, 20년, 무기형에서 각 3.71%, 1.78%, 1.79%, 0.68%, 1.79% 높은 비율이다. 반면 2~3년, 1년~1년 6월, 7월~1년 형에서는 각 △9.35%, △4.02%, △4.2% 낮은 비율이다. 이 수치는 한의약계에 대한 징역 구형이 수형기록카드 인물의 구형보다 중형 선고율이 다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 또한 7명이 있어 수형기록카드와 비교된다. 다만 비교 대상 가운데 실제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으나, 그들에 대한 카드가 재판 이전의 미결카드만 남아있어 사형 선고가 기록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

## 2. 투쟁 방략

분석 대상 가운데 독립운동으로 사형을 받은 한의약계 인사는 오상원, 원일상, 유병규, 강우규, 이종활, 장진홍, 여규호 7명이다. 오상원은 1908년 초 러시아령 연추(크라스키노)에서 이범윤과 함께 의진을 조직하여 함북 경원과 중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09년 4월 15일 경성공소원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받고 1909년 6월 8일 서대문형무소 전신인 경성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sup>38)</sup>

원일상은 함남 이원군에서 의병을 일으켜 1909년 3월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6월 함흥지방재판소에서 강도·살인으로 교수형을 받고 10월 21일 경성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sup>39)</sup>

유병규는 서울 서빙고 출신으로 1909년 4월 충남 면천군 일대의 바닷가에서 일본인 선박에 돌입하여 일본인 2명을 처단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강도·살인으로 대심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었다. 1909년 12월 1일 경성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sup>40)</sup>

강우규는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20대까지 고향에서 한의사를 직업으로 삼다가 1885년 함남 홍원으로 이주하였

다. 그곳에서 잡화상을 경영하여 경제적 여력을 갖추었다. 그 무렵 함경도 일대를 다니던 이동휘(李東輝)를 만나 그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1910년 강제병합 후 간도 두도구, 1915년 러시아 하바롭스크, 1917년 길림성 요하현 신흥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노인동맹단에 가입하였다. 동단의 투쟁 일환으로 국내로 잠입하여 남대문 역(현 서울역) 앞에서 1919년 9월 2일 부임하던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폭발물취체벌칙위반으로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sup>41)</sup>

이종활은 간도지역에서 결성된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 소속 의군단(義軍團)에 1920년 [음] 3월 가입하여 일제 밀정 처단과 군자금 모집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22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살인강도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상고했으나 같은 해 5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sup>42)</sup>

장진홍은 대구 인명학교에서 수학하고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항일의식을 형성하였다. 이후 1914년 조선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1918년 중국 봉천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귀국하였고 1927년 10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를 단행하였다. 그가 한의약계에 종사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는 1930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이다. 여기에 직업이 매약행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43)</sup> 또 함께 의거를 추진한 장택원의 진술 중 '...매약행상인 장진홍이 최적자로 인정하고 동인에게 교섭한 결과...'<sup>44)</sup>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진홍의 죄명은 총 6가지로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총포화약류취체령, 총포화약류취체령시행규칙 위반과 살인미수, 살인예비가 적용되었다.

여규호(이명 여규목)는 1906년 이석용 의진에 참전하여 동맹단을 결성하고 중군장으로 임실과 장수 등지에서 전투를 치렀다. 1908년 8차례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말 체포되었다. 1909년 3월 5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사형당한 한의약계 독립운동가의 투쟁은 무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직접 타격을 입히는 방략이었다. 의병을 거의하

38) 대심원. 「오상원 판결문」. 1909. 4. 27.

39) 대심원. 「원일상 판결문」. 1909. 9. 30.

40) 대심원. 「유병규 판결문」. 1909. 10. 30.

41) 경성지방법원. 「강우규 판결문」. 1920. 2. 25; 경성복심법원. 1920. 4. 22; 고등법원. 1920. 5. 27.

42) 경성복심법원. 「이종활 판결문」. 1922. 2. 27; 고등법원. 1922. 5. 11.

43) 대구복심법원. 「장진홍 판결문」. 1930. 4. 24; 고등법원. 1930. 7. 21.

44) 이성우. 「참여 장진홍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7;57:100.

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일제의 주요 요인 및 밀정을 처단하고, 폭탄을 사용하여 주요 기관을 폭파하는 등 격렬한 투쟁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일제의 대응도 극형인 사형으로 대응하였다.

살인강도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 위반으로 무기형을 받은 서종채는 40여 명의 의병을 조직해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합류하여 전투를 벌였다. 그의 직업은 ‘침의’였다. 1913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같은 해 9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sup>45)</sup> 내란죄로 무기형을 받은 박양래는 평안도유약소를 설치하여 을사늑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1906년 홍주의진을 지원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하였다.<sup>46)</sup> 또 일진회 평북지부 회장인 한국현(韓國顯) 처단<sup>47)</sup>을 계획하였다. 그의 형명과 형량은 자유형 시행 이전의 시기로 ‘유(流) 종신(終身)’ 형이었다. 이후의 무기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김동신 역시 의병으로 종신유형을 받았다. 1906년 홍주의진의 선봉장으로 활동하였고, 같은 해 9월 순창에서 거의하여 남원, 구례, 함양, 용담 등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일제와 격전을 벌였다. 1908년 6월 충남 회덕(현 대전)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내란죄로 ‘유종신’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손양윤은 두 차례 체포, 투옥되었다. 1915년 박상진(朴尙鎭) 등이 조직한 광복회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1917년 체포되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감형되어 1924년 출옥 후 만주로 건너가 신민부에 가입, 국내에 파견되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 일로 재차 체포되어 1929년 12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강도상인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sup>48)</sup>

15년 형을 받은 한순직은 안명근(安明根)과 함께 1910년 12월 황해도 신천 일대에서 6,400여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고 남만주에 무관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음해 안명근이 체포되면서 이른바 ‘테라우치(寺內) 암살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1911년 7월 22일 경성재판소에서 강도·강도미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

렀다. 후에 감형되어 1915년 10월 23일 출옥하였다.<sup>49)</sup> 하와이로 이주하여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독교 신자인 김병록은 1907년 10월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 이재명(李在明)과 함께 귀국하여 1909년 12월 23일 그와 함께 이완용(李完用)을 급습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10년 7월 12일 모살미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sup>50)</sup> 귀국 후 부산 초량에서 매약업에 종사하여 판결문에 직업이 매약상으로 기재되었다.

김성호는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후 1919년 11월 만주의 정의군정사(正義軍政司) 사찰과(査察課) 서리로 활동하였다. 1920년 광복군총영 제3대 결사대원들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9월 1일 선천경찰서 폭파 의거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21년 7월 2일 고등법원에서 폭발물취체벌칙,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15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sup>51)</sup>

13년 형을 받은 최세옥은 약종상으로 1919년 황해도 사리원 나석주(羅錫疇)의 집에서 김덕영(金德永)·박정손(朴正孫)·이시태(李蒔泰)·최호준(崔皓俊) 등과 함께 ‘6인 권총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1920년 1월 군자금 630원을 모집하는 등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어 1921년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총포화약류취체령, 정치범 처벌령 위반 및 강도 혐의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6인 권총단의 일원이었던 이시태 역시 당시 직업이 의생으로 한의약계 인사였다. 그는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강도미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sup>52)</sup>

한편, 한의약계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운동 비중이 낮다. 164명 가운데 3명, 1.83%만이 해당된다. 그 원인은 첫째, 한의약계 인사의 활동이 1925년 이후에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164명 가운데 47명, 28.66%로 30%에도 못 미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상 사건에 주로 적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이 1925년 5월 발효되어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활동이 많은 한의약계 독립운동가에게는 사상범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한의약이 전통적 의학, 개인 활동 위주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 의학을 익히면서

45)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서종채 판결문」. 1913. 7. 10; 대구복심법원. 1931. 9. 2.

46) 평리원. 「박양래 판결문」. 1906. 12. 13.

47)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서울:민족문제연구소. 2009.

48) 경성복심법원. 「손양윤 판결문」. 1929. 12. 2.

49) 경성지방법판소. 「한순직 판결문」. 1911. 7. 22; 경성공소원. 1911. 9. 4.

50) 경성공소원. 「김병록 판결문」. 1910. 7. 12.

51) 고등법원. 「김성호 판결문」. 1921. 7. 2.

52) 고등법원. 「최세옥·이시태 판결문」. 1921. 8. 18.

새로운 사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고, 조직과 단체 결성·사회운동과 노동운동·농민운동 등에 주력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한 종교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다. 운동노선 가운데 3.1운동(45명)과 독립운동 단체 참여(33명), 의병(16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12명)이 민족종교에 투신하여 활동했다. 종단은 무극대도(無極大道, 윤석철), 선도교(仙道敎, 박두환), 정도교(正道敎, 김중룡), 증산교(甞山敎, 강양원), 청림교(靑林敎, 방달홍·주인화), 태극교(太極敎, 임일봉), 태을교(太乙敎, 김홍규·이인연), 흠치교(岫叻敎, 류근성·안규석·이기우) 총 8개이다.<sup>53)</sup> 이들은 각 교주와 종교의 신념에 따라 '한국이 독립될 것을 확신'하며 교인을 확보하고 세력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치성금(致誠金)' 명목으로 일종의 성금을 모집하였고, 이것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사례로 김중룡은 12살부터 2년여간 서당을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20세 이후 서울 사직동의 김상운 한약방에서 한의학을 배웠다. 이 무렵 22세경 정도교에 입교하여 교주 신태제(申泰濟)와 함께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30세경 간도 용정 대통령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였다. 귀국하여 1940년 2월 20일 서울 청운동 보성약방의 조수로 일했다.<sup>54)</sup>

류근성은 전북 정읍에 본부를 두고 차경석(車京石)이 교주로 있는 흠치교에 입교하였다. 흠치교의 조직은 교주 산하 60인조 - 6인조 - 12인조 - 8인조 - 15인조 체계로 구성, 운영되었다. '1924년 갑자년 조선 각지에서 소요를 일으켜 독립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교인을 확대하였다. 그들로부터 12인조는 5원 이상, 8인조는 50원 이상, 15인조는 10원 이상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는 6인조에 가입하여 산하 12인조, 8인조, 15인조 조원들의 성금 약 170원을 모아 본부에 보내는 등 자금 모집과 교인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는 위와 같은 종교활동을 정치범죄로 보고 치안유지법과 대정8년 제령 제7호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김중룡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류근성은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sup>55)</sup>

한약계에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도 사회주의·공산주의와의 거리를 갖게 한다. 대한독립애국단의 조종대는 상동교회 전도사였고, 나병규 역시 상동교회에서의 인연으로 조종대를 도운 한의사였다. 강우규는 고향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이재명과 함께 이완용을 처단한 김병록도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인사 가운데에서도 고익진, 김보곤, 신선명, 이가순, 이윤석, 이중혁, 정광순 7명도 기독교인으로 확인된다.

천주교 신자도 있다. 변태우의 경우이다. 그는 어려서 제주읍에서 자라면서 천주교인이 되었다. 1922년 한의사 장한규(張漢奎)의 차녀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1923년 의생시험에 합격해 제주 모슬포에서 보창의원(普昌醫院)을 개업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동시에 제주의생회를 조직하여 한의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천주교 신자로서 제주읍 소재 제주천주교회의 아일랜드 출신 다와슨 패트릭 신부(한국 성명 손신부)와 교류하였다. 그와의 교류과정에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의 규모와 면적, 주둔 병력 수, 항공기 대수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일로 1940년 10월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sup>56)</sup>

## V. 결론

한약계 인사 가운데 판결문을 통해 세부 직업이 확인되는 인물은 112명으로 약종상(36명, 32.14%), 한의사(33명, 29.46%), 매약상(30명, 26.79%) 등이 있다. 이들과 기타 자료로 확인되는 52명을 대상으로 출신 지역을 살펴본 결과 독립유공자의 출신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함남의 비율이 7.82% 높은 특징을 보인다. 나이는 10대가 3명으로 극소수이고, 20~6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였다.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인물군과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대에서 △36.45% 낮은 반면 40대에서 21.36% 높다. 더불어 50~60대 노년층의 참여 비율이 각각 6.4%, 6.93% 높다는

53) 경성지방법원. 「윤석철 판결문」. 1943. 8. 14; 경성복심법원. 「박두환 판결문」. 1921. 7. 27; 경성지방법원. 「김중룡 판결문」. 1945. 6. 15; 전주지방법원. 「강양원 판결문」. 1944. 1. 10; 공주지방법원. 「방달원 판결문」. 1919. 1. 24; 공주지방법원. 「주인화 판결문」. 1917. 10. 19; 경성지방법원. 「임일봉 판결문」. 1940. 5. 31; 경성복심법원. 「김홍규 판결문」. 1923. 4. 4; 대구지방법원. 「류근성 판결문」. 1921. 12. 12; 대구복심법원. 「안규석 판결문」. 1921. 11. 26; 대구지방법원. 「이기우 판결문」. 1921. 6. 22.

54) 경성지방법원. 「김중룡 판결문」. 1945. 6. 15.

55) 경성지방법원. 「김중룡 판결문」. 1945. 6. 15; 대구지방법원. 「류근성 판결문」. 1921. 12. 12.

56) 광주지방법원. 「손신부 외 10인 판결문」. 1942. 10. 24.

점은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운동계열은 국내항일(61명), 3.1운동(45명), 만주방면(23명), 의병(16명)의 순으로 독립유공자 17,748명의 운동계열과 유사한 분포율을 보인다. 반면 국내항일 계열이 19.98% 높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비율이 높았던 특징이 있다. 반면 의열투쟁은 한의약계의 참여 수치는 적지만 독립유공자 그룹과의 비교 비율에서 2.31%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인다. 반대로 자체 참여 인원은 많지만 비교 비율에서 △7.29% 낮은 3.1운동은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투쟁 방법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형 투쟁의 비율이 높고, 집단적 대중투쟁보다는 개인투쟁과 장기적·계획적 투쟁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운동노선은 총 19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일본군과 교전하거나 일본인 처단, 조선총독 처단, 일제 밀정 처단, 일제 주요 기관 폭파, 독립운동 단체 및 기관 참여, 동맹 및 결사 조직 등 일제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투쟁 방식이 선호되었다. 19가지 노선 가운데 3.1운동의 참여가 45명(27.44%)로 가장 높고,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경우가 33명(20.12%), 의병 16명(9.74%), 민족종교 운동 12명(7.32%)의 순이다. 독립운동 단체의 참여율은 대한독립애국단과 노인동맹단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주도 인물들은 단체 결성 이전에 인적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체를 조직, 결사하였다.

죄명은 보안법(45명, 34.35%), 대정8년 제령 제7호(29명, 22.14%), 치안유지법(15명, 11.45%), 모살미수(8명, 6.11%)의 순이다. 이를 통해 3.1운동 참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 1925년 5월 치안유지법 공포 이후의 수감 비율이 낮았다는 점,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운동노선이 적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한의약계 인사들이 대부분 민족주의 성향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치안유지법은 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사상 사건에 적용되었는데, 한의약계 인사들은 전통적 의학을 수학하여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량은 징역 5년 형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형량이 수형 기록카드 기록 인물보다 비율이 높고, 그 이하는 낮다. 비교 대상에 비해 한의약계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조종대, 나병규, 강우규, 김병록 및 3.1운동에 참여한 고익진, 김보곤, 신선명, 이가순, 이윤석, 이충혁, 정광순 등 기독교 계열의

인사와 변태우 등 천주교 신자가 한의약계에 포진해 있었다.

한의약 종사자로 이동과 회합 및 한약방 운영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다. 유경집·김치보는 자신이 경영하는 한약방을 연락 거점이나 자금 수합의 거점으로 활용하였고, 민강·박성수·이원직 등은 한의사 또는 약종상이라는 직업의 이점을 활용해 문서 배포,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민족종교 운동도 두드러진다. 흠치교, 청림교, 태을교, 무극대도, 선도교, 정도교, 증산교, 태극교 등의 종교에 입교하여 12명의 인사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각 인사들은 주로 '치성금'의 형태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종교적 신념을 독립운동과 연계하여 포교 활동에 주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는 한의약계가 사회주의·공산주의 노선보다 민족주의 노선에 치중된 양상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상 한의약계 인사의 독립운동은 첫째, 일본군과 직접 교전하거나 고위 관리, 친일파 처단, 일제 주요 기관에 타격을 입히는 격렬한 투쟁 전략을 택했다. 둘째, 장기적·계획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응하는 전략을 취하며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하거나 민족종교 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셋째, 국내외에서 한약방이라는 거점을 통해 그리고 한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독립운동의 연락 본부 및 자금조달 역할에 주력할 수 있었다. 넷째, 전통의학·기독교·민족종교 등 민족주의 노선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노선의 비중이 낮다. 이는 민족주의 성향과 더불어 1925년 5월 치안유지법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즉 한의약계의 독립운동은 직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성, 직접적 타격,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한편, 본고에서 분석한 164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은 인물은 총 93명, 56.71%이다. 나머지 약 43%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적극적 자료발굴과 연구를 통해 한의약계의 독립운동이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분야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경성공소원·평리원·대심원. 「판결문」. 1909-1911. 국가

- 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DB(2023.7-9).
2. 경성·대구·광주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 「판결문」. 1912-1945.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DB(2023.7-9).
  3. 국가보훈부. 『공훈록』. 공훈전자자료관 DB(2023.7-8).
  4. 김상기. 「항일전쟁기 청원 함중어씨의 망명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23;82:77-113.
  5. 매일신보사. 매일신보. 1912. 7. 18.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DB(2023.7.15).
  6. 박경목. 「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2018;26:35-108.
  7. 박경목.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8;64:201-240.
  8.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서울:일빛. 2019.
  9.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 제도와 정책의 운영」. 대동문화연구. 2018;106:317-343.
  10. 정상규. 「신흥군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 의사학회지. 2021;34(1):31-46.
  11.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의사학. 2008;17(1):75-86.
  12. 박주성, 김재기. 「러시아 연해주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노인동맹단 연구」. 재외한인연구. 2020;52:47-82.
  13. 「수형기록카드」. 1919~19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3.7-9).
  14.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매약’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2006;15(2):189-209.
  15. 왕원균.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이원직-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성교통국 활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6.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광렬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451-486.
  17. 이성우. 「창여 장진홍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7;57:85-116.
  18. 장경호.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의 결성과 영동지역으로의 확대」. 국학연구. 2021;44:405-436.
  19. 진선영. 「식민지 시대 ‘북청’의 지역성과 함경도적 기질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014;18(4):261-283.
  20. 차혜영. 「식민지 시대 폴란드 한의사 유경집의 유라시아 디아스포라와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 한국근현대사연구. 2019;89:102-141.

부록 : 한의약계 독립운동가<sup>57)</sup>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001	판	강양원 (姜陽元)		33세	한약종상	전북 옥구	2년	치안유지법위반			국내항일
002	기 판 수	강우규 (姜宇奎)	1855~ 1920	65세	의업(한약방경영)	평남 덕천	사형	폭발물취체벌칙위반	1962	대한민국장	의열투쟁
003	수	강찬흥 (姜贊興)	1905	26세	약종상	함북 경성		치안유지법위반			만주방면
004	보	강홍상 (한자미상)		46세	의생						만주방면
005	판	고익진 (高翊鎭)		51세	의생회서기	경기 강화	3월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3.1운동
006	판	김경윤 (金敬潤)		28세	매약청매업	경남 밀양	2년	보안법위반 및 사기			의열투쟁
007	판	김경택 (金景澤)		42세	약종상	전남 여수	10월	육군형법위반			국내항일
008	기	김관제 (金觀濟)	1886~ 1951	30세		경남 고성			1990	애족장	계몽운동
009	기	김광희 (金光熙)	1892~ 1968	34세		함북			1963	대통령표창	만주방면
010	보	김대용 (金大用)		47세	의생						국내항일
011	판	김동신 (金東臣)	1871	37세		충남 회덕	무기	내란죄	1977	독립장	의병
012	판 수	김두원 (金斗源)	1892~ 미상	28세	매약행상 약종상, 조각업	평남 용강	1년	보안법위반	2023	애족장	3.1운동
013	판 수	김몽한 (金蒙漢)	1872~ 1935	48세	의생, 구장(區長) 농업	평남 용강	1년 6월	보안법위반	2007	애족장	3.1운동
014	보	김용현 (金用鉉)		33세	한의	함북 경성					의병
015	판	김병록 (金丙錄)	1885~ 미상	26세	매약상	평남 평양	15년	모살미수	1963	독립장	의열투쟁
016	판 수	김보곤 (金寶坤)	1891~ 1923	29세	매약업 야소교조수	경북 청도	1년	보안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017	수 판	김봉희 (金鋒熙)	1889~ 1941	30세	약종상	강원 춘천	6월	보안법위반	2011	대통령표창	3.1운동
018	판 수	김석로 (金錫魯)		30세	약종상 약종상	서울 창동	1년 6월	출판법위반			3.1운동
019	수	김석현 (金錫玄)	1884	35세	약종상	경기 양평	1월	보안법위반			3.1운동
020	판	김성호 (金聖灝)	1892~ 1961	30세	매약판매업	평북 선천	15년	폭발물취체벌칙 및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1963	독립장	만주방면
021	판 수	김영우 (金永祐)	1895~ 1931	27세	약종상	경북 대구	3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및 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	1990	애족장	만주방면
022	판	김영주 (金泳柱)		21세	약종상	전북 전주	10월 집유 3년	치안유지법위반			국내항일
023	판	김용성 (金龍星)	(1879) ~미상	41세	매약상	평북 삭주	6월	보안법위반	2010	대통령표창	3.1운동

57) 나이 : 선고연월일, 사건 발생 연도 기준

근거 : 판-판결문, 공-공훈록, 수-수형기록카드, 보-일제측 경무국 보고서, 기-기타(논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

서훈 연도와 훈격 : 공훈록 참조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024	판	김용일 (金容逸)		24세	약제사조수	전북 부안	6월	조선임시보안령위반			국내항일
025	판	김유근 (金有根)		48세	의생 및 약종상	경기 인천	면소 방면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및 강도 살인 은폐 홍삼전매령 위반			국내항일
026	판	김윤덕 (金潤德)	1888~ 1952	32세	한약상	경북 대구	6월	보안법위반	1996	대통령표창	3.1운동
027	판	김응봉 (金應鳳)		25세	매약상	평남 평양	5년	모살미수			국내항일
028	판	김응조 (金應祚)		56세	매약상	평남 평양	5년	모살미수			국내항일
029	판	김중룡 (金重龍)		49세	약종상조수	충남 논산	2년 6월	치안유지법위반			국내항일
030	판	김창락 (金昌洛)	1889~ 1938	31세	약종상	경북 안동	8월	보안법위반	2021	건국포장	3.1운동
031	판	김채섭 (金彩燮)		37세	약종상	전남 순천	금고 4월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032	기	김치보 (金致寶)	1859~ 1941	61세	의업(한약방경영)	평남 평양			1996	독립장	노령방면
033	판	김헌식 (金憲植)		60세	약종상	경북 봉화	면소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정치에관한범죄 처벌의건위반 및 치안유지법위반 강도			국내항일
034	판	김홍규 (金洪奎)	1888~ 1950	35세	농업겸 매약상	전북 김제	1년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05	건국포장	국내항일
035	기	김홍조 (金弘祚)		46세		경남 울산					국내항일
036	수	김황룡 (金黃龍)	1907	24세	약종상	함북 명천	불기소	치안유지법위반			만주방면
037	판	나병규 (羅炳奎)	1852~ 1924	69세	의생	평남 성천	벌금 100원	정치범죄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1990	애족장	국내항일
038	공	노병희 (魯炳憲)	1849~ 1918	57세	한의사 (의관)	전북 고창			1990	애국장	의병
039	판	노형근 (盧馨根)	1884~ 1960	36세	매약행상	황해 금천	1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040	판	류근성 (柳根成)	1884~ 1945	39세	의생	경북 달성	4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06	애족장	국내항일
041	판수	류재영 (柳在英)	1889~ 1945	50세	약종상 약종상	충북 옥천	10월	보안법위반 법률사무취급취체에 관한건위반	2008	건국포장	국내항일
042	판	모순기 (牟順基)	미상	22세	약종상	전남 함평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09	대통령표창	3.1운동
043	판	문봉의 (文鳳儀)	1878~ 1937	43세	약종상	충남 서산	4년	정치범죄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1991	애국장	국내항일
044	판	문태현 (文太鉉)		63세	의생	경남 합천	공소 기각	치안유지법위반			국내항일
045	판	민강 (閔樞)	1883~ 1931	37세	약종상	서울 화천정	1년6월	보안법위반	1963	독립장	국내항일
046	판	민윤식 (閔允植)		43세	의생	충남 아산	1년	보안법위반 문서위조행사 사기취재			국내항일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047	기	박관준 (朴寬俊)	1874~ 1945	67세		평남 개천		치안유지법위반 황실불경죄 육군형법위반	1991	애국장	문화운동
048	판	박두환 (朴斗煥)		45세	의생	함남 영흥	무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국내항일
049	수 관	박만수 (朴萬守)	1907	22세	약종상 매약물상	전남 목포	3년	치안유지법위반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출판법위반			국내항일
050	기	박성수 (朴性洙)			한의사	충북 청주					국내항일
051	보	박성용 (한자미상)		27세	군의						국내항일
052	보	박세정 (한자미상)		47세	군의						국내항일
053	판	박승룡 (朴承龍)		48세	의생	함남 이원	1년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054	판	박승린 (朴承麟)		35세	의생	함남 이원	1년 6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2013	애족장	3.1운동
055	판	박양래 (朴樑來)		42세	의업	경북 안동	(무기) 유(流) 중신 (終身)	내란	2015	애족장	의병
056	판	박영운 (朴永運)		46세	의생	평북 의주	1년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국내항일
057	판	박용태 (朴龍泰)		35세	의생	황해 은율	3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05	애국장	중국방면
058	판	방달홍 (方達泓)		55세	약종행상	함남 고원	태 90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059	판	방원길 (方圓吉)	1879~ 1929	41세	의생	평남 대동	2년6월	보안법위반 소요	2011	애족장	3.1운동
060	기	방주혁 (方周赫)			한의사(시종관건의)	경남					국내항일
061	판	방정환 (方正圓)		34세	한의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16	건국포장	만주방면
062	판	백승하 (白承河)	1874~ 미상	48세	의생	함남 원산	1년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2011	애족장	만주방면
063	공	변태우 (邊太祐)	1899~ 1965	43세	의업	제주 제주	1년	국방보안법위반 군기보호법위반	1993	건국포장	국내항일
064	판	서병희 (徐丙熙)		43세	한의	경남 양산			1990	독립장	의병
065	판	서종채 (徐鍾採)	1881~ 1916	33세	침의	전북 무장	무기 징역	살인강도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위반	1990	독립장	의병
066	판	선철관 (宣澈觀)		46세	매약업	경남 마산	무죄	증빙인멸			임시정부
067	기 판	서태석 (徐邵皙)	1884~ 1943	46세	한의사	전남 무안	3년	보안법위반위반	2003	애국장	국내항일
068	판	손양윤 (孫亮尹)	1878~ 1939	50세	매약행상	경북 달성	20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및 강도, 강도상인	1977	독립장	만주방면
069	판	송암철 (松岩徹)		47세	침술영업	충북 청주	벌금 50원	조선임시보안령위반			국내항일
070	판	송인호 (宋仁昊)		28세	매약상	평북 신의주	6월	보안법위반			3.1운동
071	기	신광렬 (申光烈)	1903~ 1980	27세	의업(한약방경영)	함남 북청	면소		2022	대통령표창	만주방면
072	판	신상호 (申尙昊)		38세	약제사	평남 평양	6년	모살미수			국내항일
073	판	신선명 (申善明)	1875~ 미상	45세	매약업, 기독교도	경기 개성	3년 6월	보안법위반 진신법위반	2008	애족장	3.1운동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074	공판	신전희 (申全熙)	1872~ 1942	56세	의생	경남 통영	3월 집유 2년	소요	2007	대통령표창	국내항일
075	기	신홍균 (申洪均)	1881~ 1940	52세	의업(한약방경영)	함남 북청			2020	애족장	만주방면
076	기	심병조 (沈秉祚)	1894~ 1945	27세	한의사	평북 선천	4년		1990	애국장	만주방면
077	판	안규석 (安圭錫)		19세	약종상	경북 영양	면소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국내항일
078	판	안승락 (安承樂)	1913~ 1943	23세	의원경영	경남 창원	3년	치안유지법위반	2008	애족장	국내항일
079	판	안종석 (安鍾奭)				충남 예산			2010	애족장	의병
080	판	안태순 (安泰純)	1872~ 미상	48세	의생	황해 신천	1년	정치범퇴처벌령위반	2009	애족장	노령방면
081	보	안형섭 (安衡涉)									만주방면
082	공판	어취선 (魚聚善)		45세	한의업	경기 광주			2014	건국포장	의병
083	판	엄주신 (嚴柱信)	1890~ 973	30세	의생	경남 함안	8월	보안법위반	1992	대통령표창	3.1운동
084	판	엄해윤 (嚴海潤)	1863~ 1909	44세	의업(의술)	강원 영월	유(流) 7년	내란음모	1996	독립장	의병
085	판	여규호 (呂圭浩)		38세	한의	전북 임실	사형		1990	애국장	의병
086	판	오상원 (吳相元)	1844~ 1909	65세	의업	함북	사형	내란	1995	독립장	의병
087	판	오영순 (吳英淳)		24세	약종상	불상	7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만주방면
088	판	오택의 (吳宅儀)		32세	매약상겸학교사무원	황해 신천	무죄	모살미수			의열투쟁
089	판	원일상 (元逸常)	1849~ 1909	61세	의업	함남 북청	사형	강도, 살인	2018	애국장	의병
090	기	위병식 (韋秉植)		34세	한의업	평남 평원					국내항일
091	공	유경집 (劉敬緝)			한의사 (약종상경영)	함남 원산					노령방면
092	판	유병규 (劉秉奎)		34세	약상	서울 남부 지방	사형 교(絞)	강도, 살인			의병
093	판	유환기 (柳歡基)	1876~ 1923	35세	약종상	전북 용담	7년	강도	2014	애국장	의병
094	기	윤광열 (尹光烈)			의업	서울					광복군
095	판	윤석칠 (尹石七)		60세	한약종상	황해 황주	면소	치안유지법위반			국내항일
096	보	윤인혁 (胤寅赫)		38세	의생	경기 강화					3.1운동
097	보	윤종악 (尹鍾岳)		34세	의생	경기 강화					3.1운동
098	기	윤창식 (尹昶植)			의업	서울					국내항일
099	판	이가순 (李可順)	1867~ 1943	53세	약종상	함남 원산	2년 6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00	판	이경창 (李慶昌)		47세	침술업	서울 남문	무죄	보안법위반			중국방면
101	판	이근식 (李根軾)		31세	의생	평남 진남포	1년 6월	소요			3.1운동
102	기판	이근식 (李根寔)	1880~ 1956	28세		평북 선천	7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강도	1990	애국장	국내항일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103	판	이기우 (李琦雨)		50세	약종상	경북 청송	1년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국내항일
104	판	이기현 (李起憲)	미상	38세	의생겸약종상	강원 평창	6월	정치범죄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1990	애족장	국내항일
105	판수	이만석 (李萬錫)	1902~ 미상	18세	매약상 매약상	경기 가평	1년 6월	소요 보안법위반			3.1운동
106	판	이명수 (李明洙)	1868~ 미상	52세	약종상	전북 전주	8월	보안법위반	2015	대통령표창	3.1운동
107	판수	이명언 (李明彦)	1880~ 1927	40세	매약상	경북 영덕	8월	보안법위반	2008	대통령표창	3.1운동
108	판	이민태 (李敏台)	1872~ 1925	47세	약종상	서울 수은동	10월	보안법 및 출판법위반	2015	건국포장	3.1운동
109	판	이병우 (李炳宇)		35세	한의업	전남 장성			1990	애족장	임시정부
110	판	이시태 (李蒔泰)	1893~ 1933	29세	의생	평남 평양	5년	정치범처벌령위반 및 강도미수	1990	애국장	만주방면
111	판	이연수 (李延洙)	1891~ 미상	30세	의생	강원 철원	1년 6월	정치범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1990	애족장	국내항일
112	공	이우룡 (李羽龍)			한의사	경남 부산					만주방면
113	판	이용 (李鏞)	1874~ 1948	46세	의생	경기 고양	6월	보안법위반	2012	대통령표창	3.1운동
114	판	이용돈 (李容敦)	1891~ 미상	29세	약종상	함남 정평	8월	보안법위반	2021	대통령표창	3.1운동
115	판	이용석 (李龍石)		26세	매약업	함남 함흥	상고 기각	보안법위반			3.1운동
116	판	이윤석 (李胤錫)		25세	한의	강원 춘천	2년	보안법위반 소요	1990	애족장	3.1운동
117	기	이원발 (李元發)	1878~ 1932	50세	한의사	경북 영양	2년	치안유지법위반	2016	애족장	만주방면
118	판	이원직 (李元植)	미상~ 1945	51세	의생	서울 도업동	5년	정치범처벌령위반	1963	독립장	임시정부
119	판	이위춘 (李位春)	1884~ 미상	36세	의생	평북 정주	8월	보안법위반	2013	건국포장	3.1운동
120	판	이인언 (李仁彦)		44세	의생	황해 황주	상고 기각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121	판	이종활 (李鍾闊)	1877~ 1922	45세	약종상	함북 명천	사형	살인강도	1995	애국장	만주방면
122	판	이중희 (李鍾繪)	1888~ 미상	39세	한약상	전남 영암	1년 집유 3년	치안유지법위반	2022	애족장	만주방면
123	판	이중혁 (李重赫)	1899~ 1936	21세	매약행상	전북 전주	1년	보안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24	판	이충헌 (李忠憲)		26세	약종상	전북 무주	면소 방면	사기취재 및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125	판수	이홍근 (李洪根)	1900~	18세	매약상 매약중보관업	강원 홍천	6월	보안법위반			3.1운동
126	판	임도성 (林道成)	1878~ 1953	41세	의생	황해 신천	3년	보안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27	판	임성춘 (林聖春)	1869~ 1937	47세	매약행상	경기 부천	1년	소요 보안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28	판수	임일봉 (林一奉)	1900~	41세	농업겸매약청매업	강원 김화	1년 6월	육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129	판	장식 (張植)		32세	약종상	강원 울진	미상	출판법위반			국내항일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130	판	장진홍 (張鎭弘)	1895~ 1930	35세	매약행상	경북 칠곡	사형	치안유지법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위반 살인미수 살인예비	1963	독립장	의열투쟁
131	판	장형 (張炯)				평북 용천			1963	독립장	임시정부 (국내항일)
132	판	전경인 (全景仁)		27세	약종상	강원 울진	6월	협박 공갈 및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133	판	전상준 (全相俊)		62세	약종상	충북 제천	공판에 부침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및 강도			국내항일
134	판	정광순 (鄭光淳)	1880~ 1961	40세	의업	경북 대구	1년 6월	보안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35	판	정구용 (鄭九鎔)	1880~ 1941	44세	의생	경북 영일	1년 6월	소요 및 보안법위반	2002	애족장	국내항일
136	판	정이선 (鄭利善)		28세	의생	평북 용천	1년 6월	보안법위반			3.1운동
137	판	정주현 (鄭周鉉)	1891~ 1923	21세	약종상	평남 평양	5년	모살미수	1990	애족장	계몽운동
138	공	정환직 (鄭煥直)	1844~ 1907	63세	한의사 (태의원 시종관 증추원 의관)	경북 영천			1963	대통령장	의병
139	판	조영제 (趙永濟)		34세	매약상	평남 평양	5년	모살미수			국내항일
140	공	조종대 (趙鍾大)	1873~ 1922	47세	약종상 (한의학 전공)	황해 금천	5년	정치범죄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1963	독립장	국내항일
141	기	조헌영 (趙憲泳)			한의학자	경북 영양					일본방면
142	판	주동섭 (朱東燮)		30세	의생	경기 안성	6월	보안법위반			3.1운동
143	판	주인화 (朱寅化)		40세	의생	함남 북청	8월	보안법위반			국내항일
144	판	주현직 (朱賢則)		30세	의사	평북 선천	6년				국내항일
145	판	진택룡 (陳澤龍)	1873~ 1944	47세	의생	함남 정평	1년 6월	소요 보안법위반	2008	애족장	3.1운동
146	판	차문옥 (車文玉)	1898~ 미상	22세	매약행상	황해 웅진	3년	보안법위반	2015	애족장	국내항일
147	판 수	채장숙 (蔡章淑)	1875~	44세	매약상	강원 김화	10월	보안법위반			3.1운동
148	판	최덕복 (崔德福)	1882~ 미상	38세	약종상	함남 함흥	1년	소요 보안법위반	2011	애족장	국내항일
149	판	최세욱 (崔世郁)	1883~ 1929	38세	약종상	황해 재령	13년	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 정치범죄처벌령위반 및 강도	1990	애국장	국내항일
150	판	최승규 (崔承圭)	1881~ 미상	39세	매약상	황해 장연	1년	보안법위반	2011	애족장	3.1운동
151	판	최예락 (崔禮洛)	1871~ 미상	49세	의생	평북 구성	1년 6월	보안법위반	2011	애족장	3.1운동
152	판 수	최응모 (崔應模)	1889~ 1950	52세	약종상 약종상	충남 논산	1년 6월	불경보안법위반 및 육해군형법위반	1999	애족장	3.1운동, 국내항일
153	판 수?	최익무 (崔翼武)	1875~ 1932	46세	약종상	경북 대구	5년	정치범죄처벌령위반 공갈, 출판법위반	1991	애국장	국내항일
154	판	최정국 (崔正國)	1883~ 미상	44세	매약청매업	함남 영흥	2년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강도	1983	애족장	만주방면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

연번	근거	성명	생년	나이	직업	본적	징역 형량	죄명	서훈 연도	훈격	운동계열
155	판	최종준 (崔宗駿)	1870~ 1937	50세	약종상	함남 이원	1년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56	판	최중채 (崔鍾彩)		23세	침구술견습	전북 부안	금고 8월	육해군형법위반			국내항일
157	판	한순직 (韓淳稷)	1884~ 미상	28세	매약상	황해 신천	15년	강도, 강도미수	2017	애국장	국내항일
158	기	한운섭 (韓雲燮)		28세	한의	함남 함흥	10년				의병
159	기 판수	한일청 (韓一淸)	1899~ 1960	36세	한의사	경북 예천	5년	치안유지법위반	2009	애국장	국내항일
160	기	허발 (許潑)			한의사	경남 김해					만주방면, 의병
161	판	허재기 (許在基)	1887~ 1969	35세	의생	경남 고성	1년 6월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	1990	애족장	3.1운동
162	기	허형식 (許亨植)				경북 선산					만주방면
163	판	홍순의 (洪順義)	1890~ 1959	64세	의생	함남 홍원	기소유예	조선임시보안령위반 보안법위반 육군형법·해군형법위반	1990	애족장	국내항일
164	수	황진연 (黃珍淵)	1899	37세	의생	함북 명천		치안유지법위반			만주방면